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수단부터 가자까지...국내난민 7천590만 명 ‘집계이래 최다’



지난해 수단 내전과 가자지구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의 수가 관련 집계 시작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난민감시센터(IDMC)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국내난민 수가 7천590만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말의 7천110만 명에서 더 늘어나 2008년 관련 집계 시작 이래 최대에 해당한다고 국내난민감시센터는 설명했다. 전 세계 국내난민 수는 2018년 (5천3만 명) 이후 5년간 51% 증가했다. 국내난민이란 전쟁 등 각종 무력 분쟁과 폭력사태, 재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 안의 다른 지역으로 쫓겨간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일반적인 난민(Refugee)과 달리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작년 한 해 국내난민들이 강제로 이동한 횟수는 모두 4천690만 건이었다. 이 가운데 분쟁·폭력에 의한 이동이 2천50만 건, 재해·재난에 의한 이동은 2천640만 건이었다.

분쟁·폭력에 의한 강제 이동 건수의 약 3분의 2는 수단, 민주콩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4월 내전이 발발한 수단에서 지난해 600만 건의 국내 강제이동이 있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강제이동으로는 2022년 우크라이나(1천690만 건)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가자지구의 국내난민 수는 170만 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재해·재난에 의한 강제이동의 3분의 1은 홍수와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중국과 튀르키예에서 발생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국내난민 7천590만 명 가운데 6천83만 명은 분쟁과 폭력으로, 770만 명은 재해·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수단(910만 명), 시리아(720만 명), 콩고민주공화국(670만 명), 콜롬비아(510만 명), 예멘(450만 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체 국내난민의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 있었다. 국내난민감시센터는 “최근 2년 동안 분쟁과 폭력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놀라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목격했다”며 “분쟁과 그로 인한 파괴는 수백만 명이 삶을 되찾는 것을 막고 이는 종종 수년 동안 계속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편 91:1-3)

하나님, 분쟁과 폭력사태, 각종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지만, 그마저 국경을 넘지 못해 국제사회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국내난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이때 난민들이 같은 민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탐심이 가득한 죄와 자연재해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깨달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를 찾게 하소서.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을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카자흐스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급증...종교법 강화 우려

카자흐스탄 남부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경찰의 급습, 체포 및 벌금 부과가 급증하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최근 전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상황이 1991-2019년 집권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통치 시절의 박해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종교에 대한 급습, 박해 및 벌금 부과는 종교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을 때 자주 발생했다며 카자흐스탄이 곧 종교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3월과 4월에 키르기스스탄 국경 근처 슈 지역의 미등록 개신교회 3곳을 급습해 예배 중인 신자들을 촬영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슈침례교회는 4월 14일과 30일 급습을 당했고 목사인 안드레이 보이프라프(77)는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데살로니가후서 1:3-4)

하나님, 박해 수위가 높아져 가는 카자흐스탄 교회를 향해 주 안에 굳게 서는 은혜와 서로를 더욱 귀히 여김으로 성도의 하나 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정부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서 맞이하는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희생과 눈물로 뿌려진 복음과 기도의 씨앗을 통해 복음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립학교에 '십계명 전시' 의무화 추진

미국 루이지애나주 상원이 공립학교 내부에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지난 16일 루이지애나주 상원은 하원법안 71호를 찬성 30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각 건물과 교실에 십계명이 최소 11×14인치 크기의 포스터나 액자에 전시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아담스 베스 상원의원은 KALB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십계명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나라가 건국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도디 호튼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4월 루이지애나주 하원에서 찬성 82표 반대 19표로 통과됐다. 루이지애나주는 작년 모든 교실에 국가 모토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를 전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신명기 6:24-25)

하나님, 세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거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귀히 여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담대한 행보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의 다음세대가 십계명을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의 경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고, 참된 의로움과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만족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선택할 줄 알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마침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엘니뇨로 극심한 가뭄 직면...900만 명 기아 위기



말라위의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엘니뇨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인권사이트 릴리 프웨에 따르면, 말라위의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 농업기구(FAO)의 지역 책임자는 각각 정부와 국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엘니뇨는 지구상에서 태양에너지가 많이 유입되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으로, 남미 연안에서 평소 바다 밑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물이 상승하지 않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면서 따뜻한 겨울이나 평소와 다른 강우량을 가져오게 한다.

이처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이번 시즌 옥수수 수확량이 5년 평균 대비 45% 감소하고 식량 불안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연말까지 인구의 약 40%가 극심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북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약 1만 4,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월 25일 말라위 대통령은 국가 재난을 선포했다. 4월에 발표된 국가 대응 계획에 따르면 4억 4,9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웃 국가인 잠비아와 짐바브웨도 국가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책임자는 “가뭄으로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곡물 창고는 적어도 1년 동안은 비어 있을 것이다.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은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식량 재고가 고갈되고 옥수수 가격이 작년보다 40%나 오른 상황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이미 영양실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엘니뇨현상으로 지난 3월 열대성 사이클론 프레디가 발생, 2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주요 인프라가 손상됐다. 2022년에는 말라위에서 사상 최악의 콜레라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 책임자는 “기후 충격의 규모, 빈도, 비용은 재난 대비와 기후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자는 “지금은 긴급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투자해야 한다”며 “말라위의 지역사회가 회복력 있고 식량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이사야 32:1-2,15)

하나님, 엘니뇨로 인해 국가 재난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말라위가 긴급한 지원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이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국가의 회복과 안전한 미래가 재정적 확보에 있지 않고,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깨달아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살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로 말라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러시아정교회, 어린이들에게 군사 훈련 제공 논란

러시아정교회가 교회에서 12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를 인용,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 전했다. 훈련은 오팔리카의 엘리자베스 교회 인근 숲에서 매주 주말 진행되며, 소형 무기 및 경무기 훈련·무기 분해 및 조립·사격 자세·술 기동·공격·후퇴 및 방어·지뢰 설치 및 제거 등 다양한 군사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딘초보 대주교와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행정국장 크라스노고르스쿠가 축복한 이 프로그램은 사제들이 참석해 애국심과 러시아 역사에 대한 수업도 진행한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과거에도 러시아정교회가 병력을 모집해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크론슈타트 해군 대성당에서 군사 회사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총대주교 키릴은 성직자들에게 매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거부하면 성직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로새서 1:16)

하나님, 러시아정교회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12세 소년에 이르는 아동들까지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성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함으로 기도합니다. 군사훈련으로 이용당하는 다음세대가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권세자들의 심령을 흔드사 왕권과 주권, 통치자와 권세, 만물이 다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 서울경찰청, 청소년 도박 급증 2차 범죄 발생으로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이 최근 청소년 도박 급증과 대리입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시내 학교 1,374 곳과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19일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약 3배 늘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연이율 1,000% 이자를 챙기는 고금리 사채다. 청소년에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임 아이템·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해 수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지난 3월에는 한 중학생이 도박으로 1,600만 원을 잃고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 300만 원을 이용했다가 매일 빚 독촉을 받았다.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학부모에 실시간 알리는 시스템이다.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필지라도 따르지 말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잠언 1:10,15)

하나님, 사냥꾼이 그물을 침과 같이 다음세대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오니 이 세대의 아들이 눈과 귀를 금하여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른 자녀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교회와 가정, 학교가 함께 회개와 간구로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다음세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MBB 기독교인, 집에서 찬송했다는 이유로 구금**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Muslim Based Believer, MBB)들이 집에서 찬송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성 지도자 마후자는 자신의 집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일부 성도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하고 있을 때, 20-25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마후자와 일행에게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마후자와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 같은 비난에 거짓이라고 항변하자 무슬림 무리는 더 분노하며 이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마후자는 “우리는 내일 있을 부활주일을 위해 찬송을 연습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면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자 그들은 경찰을 불러 거짓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주장만 믿고 혐의에 대한 아무 증거도 없이 마후자와 다른 여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즉시 경찰서로 끌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력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들의 휴대폰과 기타를 압수했다.

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해명을 듣지 않았고 더 심하게 압박했다. 결국 벗어날 길이 없었던 이들은 몇 시간 후에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이들은 휴대폰을 돌려받았지만 기타는 부러져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경찰로부터 들었다.

마후자는 다음 날 성도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들은 이제 교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른 집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공간을 찾지 못했다. 무슬림 이웃들은 마후자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고 교회 활동들을 그만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에 오픈도어는 “다른 신자들은 표적이 될까 봐 두려워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집에서 쫓겨나 최근에 겨우 현재 집으로 옮겼다”며 “무슬림들이 기독교 가정, 특히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에게 집을 임대하려고 하지 않아 너무 자주 집을 옮겨 다녀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박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여성 중 한 명으로, 여전히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이웃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시편 115:11,17-18)

하나님, 거짓 고발로 박해하는 무슬림들과 공의롭지 못한 경찰로 인해 낙망치 않고 오히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예배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 교회가 저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신앙과 복음 전파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네덜란드, 정신 질환자 20대 여성 안락사 허용 논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네덜란드의 20대 여성이 법원에 안락사(조력 사망)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에 지난주 법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포스트 등을 인용, 뉴시스가 20일 전했다. 어릴 때부터 만성 우울증 불안-트라우마-경계성 인격 장애-자폐성 진단까지 받은 조라야 터 비크(29)는 2020년 8월 말하기·약물 치료, 30회 이상의 전기경련요법(ECT) 등 10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그해 12월 안락사를 신청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정신 질환 환자의 죽음을 돕는 안락사 사례는 많지 않아 비크의 사례는 논란이 됐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 이다(예레미야애가 3:22-23)

하나님, 날로 더해져 가는 안락사의 방법과 대상에 대한 법적인 논란 앞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뿐인 우리의 실존을 깊이 자각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교활한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 그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리려 하는 네덜란드의 여성을 긍휼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로 네덜란드에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진리의 법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는 생명의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 캐나다, 일본인 여성 동성커플 난민 인정

캐나다 정부가 일본에서 엘지비티(LGBT)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여성 동성애자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19일 전했다. 각각 50대와 30대인 이 동성 커플은 학생 비자 등으로 2021년 캐나다로 이주해 캐나다 정부가 엘지비티(LGBT)를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2022년 11월 난민 신청 절차를 시작해 작년 9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법체계 미비점을 정리한 2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난민 결정 통지서에서는 일본에서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예레미야 4:22)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마음의 미련함으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린 이 헛된 일을 보시옵소서. 수치를 모르는 일본인 여성 동성애자 커플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판단으로 그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캐나다를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나라가 되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즐거이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로 일어나게 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